

전남도, 지역 역사·정신 담은 도 지정유산 신규 지정

화순 용암사 목조보살좌상·곡성 영수정·고흥 점암 대춘별신제 등 3건

전라남도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역사문화·무형 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역 역사와 정신을 담은 유산 3건을 도 지정유산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유형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전남의 문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도민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유산 가운데 화순 용암사 목조보살좌상(유형문화유산)은 조선 후기 호남지역 조각승 색난파에 의해 조성된 불상으로 추정된다.

얼굴의 각진 형태와 연화형 띠 장식, 두툼한 눈두덩 등 독특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조선 불교 재건기 불상 조각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곡성 영수정 일원(자연유산)은 조선시대 곡성 일곱 성씨가 향약을 실천하던 공간으로, 민간 주도 향촌 공동체 운영을 보여주는 역사자료다. 정자는 전통 목조건축의 미학과 구조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호남 정자건축의 전형으로서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고흥 점암 대춘별신제(무형유산)는



전남도 지정유산-곡성 영수정 일원

마을 단위로 전승된 별신굿 형태의 민속 신앙으로, 제의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히 농악대를 중심으로 한 정화의식과 부조(扶助)의 기능이 뚜렷해 공동체 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귀중한 무형유산이다.

이와함께 장흥 반계사와 소장 유물이 기존 반계사 유물 일괄이라는 명칭에서 반계사 건축과 유물의 통합적 가치를 반영해 명칭 변경됐다. 조선시대

사우(祠宇) 건축과 문중 유물을 함께 보존함으로써 역사적 장소성과 문화유산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했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유형정책관은 "지정유산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의 삶과 연결되는 살아 있는 자산"이라며 "지정 유산이 공동체의 기억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지역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지정유산 보존과 활용을 균형 있게 추진해 전남이 지닌 문화적 잠재력을



전남도 지정유산-화순 용암사 목조보살좌상

을 지속해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4일 완도·구례·여수·광양·고흥·신안·화순·해남 등 8개 시군의 총 12건 문화유산에 대한 지정 예고를 공고했다. 예고 유산은 조선시대 불상, 향일운동과 의병 전적지, 지역 명사 유적, 전통 공예와 무속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3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영수 기자

영암 전통 장작가마 생활도기 들여 놓으세요

그릇·접시 등 8개 품목 35종 신제품 출시... 도기박물관서 구입

영암군이 생활도기 문화 확산과 지역 브랜드 강화 등을 취지로 영암도기의 예술성·고유성을 살린 전통 장작가마 생활도기 신제품 35종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들은 그릇, 접시, 컵, 다기세트, 화병 등 총 8개 품목으로 구성됐고, 전통 유약의 질감과 현대 감각의 실용성을 결합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누구나 쉽게 생활도기를 가정에 들일 수 있도록 가격대는 5,000원에서 30만원선까지 다양하다.

'시유도기의 고장'인 영암은 오랜 도예 전통을 간직한 지역이지만, 지금까지 장작가마 제품은 복원용·전시용, 고가품 위주로 생산돼 대중들의 접근이 어려웠다.

영암군은 이번 생활도기 생산 확대를 도기의 대중화 및 관광자원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도기 신제품은 영암도기박물관에서 구입할 수 있고, 영암군은 관광체험상품과 연결한 마케팅도 이어갈 예정이다.



제품 문의 및 구입은 영암도기박물관 전화(061-470-6861)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연희 영암도기박물관 팀장은 "전통 장작가마에서 탄생한 제품을 실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신제품을 기획했다. 지역 도예의 예술성과 장작가마 특유의 질감이 어우러진 제품을 사용하며 도기와 함께 하는 생활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6월에 이어 10월 추석연휴, 11월 국화축제와 한옥비엔날레에 2차례 전통 장작가마 체험행사를 운영할 예정이고, 이번 생활도기 신제품 가격은 <영암군 도기생산품 관리규정>에 따라 생산과 가격이 결정됐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양금호도서관, '아트 앤 라이프' 두 번째 강연 <라디오와 음악> 개최

'아트 앤 라이프' 두 번째 강연... 라디오를 통해 팝 음악을 만나는 특별한 여름 오후

광양금호도서관이 오는 8월 1일(금) 오후 4시 금호도서관 음악당에서 예술 특강 시리즈 '아트 앤 라이프'의 두 번째 강연 <라디오와 음악>을 선보인다.

'아트 앤 라이프'는 시민들의 일상 속 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총 3회 구성의 기획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21일 첫 회 '마티스 더 제츠' 공연이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두 번째 강연은 대중음악과 라디오 방송의 역사를 오랫동안 조명해 온 정일서 KBS PD가 강연자로 나선다. 그는 '그 시절 우리들의 팝송', '당신과 하루키와 음악', '365일 팝음악사' 등 다수의

음악 관련 저서를 집필했으며, 「황정민의 FM대행진」, 「유희열의 라디오 천국」 등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연출한 바 있다.

정 PD는 라디오 제작 에피소드와 시대별 대표 팝송에 얽힌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오디오 클립과 뮤직비디오를 함께 감상하는 청각·시각 융합형 강연을 선보인다. 'Piano Man', 'Bohemian Rhapsody' 등 팝 명곡을 통해 라디오가 시대 정서와 음악 감성을 어떻게 전달해 왔는지를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강연에는 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라디오 PD라는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김현숙 도서관과장(직무대리)은 "이번 강연은 '라디오'와 '팝송'을 매개로 음악 감상과 방송 매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디오와 음악> 강연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강 신청은 7월 1일(월)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아트 앤 라이프' 마지막 화차는 오는 9월 4일(목) 오후 7시,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김기선 테너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강연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금호도서관 ☎ 797-3829)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강진군, 제6회 현구문학상 작품 공모

김현구 시인 문학정신 계승할 역량 있는 작가 찾는다

강진군이 1930년대 시문학과 대표 시인 김현구(1904~1950)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회 현구문학상' 작품 공모에 나선다.

강진군과 현구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등단 10년 이상(2015년 7월 1일 이전 등단)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 국내에서 출간된 단일 저자 작품집만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품집 또는 수록작 중 한 편이라도 타 문학상 수상 이력이 있을 경우 응모가 불가하다.

공모 부문은 운문(시, 시조, 동시)과 산

문(소설, 수필, 동화, 평론/회곡)으로 나누며, 각 부문별로 1,0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접수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평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신청서는 강진군청 홈페이지 또는 시문학과기념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접수처는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영랑생가길 14 시문학과기념관이다. 시상식은 9월 26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문학과기념관(061-430-3372-5)으로 하면 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보다나온 농어촌

지가 있다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